

영광법성포단오제 29일 ‘팡파르’

전수교육관·법성포 뉴타운 일원
‘빛·바람 기억하는 오백년~’ 주제
창작 가무극·낙화놀이 등 풍성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오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오백년의 흥겨움’을 주제로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 뉴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26일 영광군에 따르면 법성포단오제는 다른 지역 단오제와 차별화되는 민간 주도 축제다.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며,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진정한 민속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축제는 칠산바다를 배경으로 법성포단오제의 전통과 정서를 담은 창작 가무극이 첫선을 보이며 ‘단오 어린이 우리웃 뽀내기대회’, ‘낙화놀이’,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등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청소년과 지역 학생들에게도 흥미롭고 뜻

깊은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오제는 전통을 계승하고, 현대적 감각의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더해 지역민은 물론 전국 관광객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행사는 전통을 계승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문화 축제의 장으로서, 풍성한 불거리와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국가무형유산의 지정행사인 용왕제를 비롯해 선유놀이, 숲쟁이 전국국악경연대회 등 전통 민속·제전행사와 기념식, 단오제 씨름대회, 청소년 페스티벌, 학생 차예절 경연대회, 민속놀이 경연대회, 단심줄놀이·강강수월래·창포 머리감기 등 체험 행사가 열린다.

주요 공연 라인업도 화려하다.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열리는 클로리콘서트 ‘천년의 영광 오백년의 흥’에는 전종혁, 민지, 윤경, 최수호 등이 출연한다. 30일 단오축하공연 ‘달빛길 따라 단오길 따라~’에는 양하, 양수경, 김창렬, 신예 등이, 31일 청춘난장 콘서트 ‘날Go! 뽀내! 우리가 별☆이다’에는 짹짹루, 백프로, DJ DIGI, 싸곤 등이 6월 1일 폐막식에는 황민호, 백장미, 박미경, 송가인 등이 출연한다.

지난 2012년 국가 무형 유산으로 지정된 이후 강릉단오제, 자인단오제와 함께 대한민국 3

대 단오 축제로 손꼽히고 있다.

조선시대 법성포 조창의 역사와 파시 문화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민속 제전 형태를 띠게 됐다. 고려 성종 11년(992년)에 설치된 법성포 조창은 조선 중종 이후 전국 최대 규모의 조운창으로 발전했다. 많은 군사, 인부, 상인,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단오라는 고유 명절이 민간 제전의 형식을 띠고 발전하게 됐다.

법성포단오제가 대중 축제로 자리 잡게된 데에는 법성포의 조기파시와 연관성도 크다. 파시의 활발한 물자 유통과 교역은 단오제의 재정적 기반이 됐고, 단오를 맞아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나눔문화’가 형성돼 이어지고 있다.

영광군과 ㈜법성포단오제보존회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줄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법성포단오제는 조상의 얼과 지혜,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는 문화유산이다”며 “법성포단오제를 통해 세대와 지역을 넘어 함께 어우러지고, 영광의 역사와 맛을 직접 체험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2025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오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빛과 바람이 기억하는 오백년의 흥겨움’을 주제로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법성포 뉴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영광군 제공

함평군 ‘주민불편 신속 처리제’ 도입

함평군이 군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불편 신속 처리제’를 도입한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6월부터 시행되는 ‘주민불편 신속 처리제’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군민 불편이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수동적 민원 대응을 넘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함평군은 이번 제도에 ‘전지적 참견 시점 인함평’이라는 부제를 내세워 공무원이 군민의 일상에 적극적으로 ‘참견’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제도 운영 방식은 간단하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군민 불편사항이나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기획예산실에 보고하고, 기획예산실은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달해 7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조치 기한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모든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민 입장에서 불편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현장 밀착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함평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김승구 승원펠리체 대표, 강진군에 고향기부금

김승구 승원펠리체 대표가 강진군에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승원펠리체는 광주시에 소재한 건설회사인 승원종합건설(주)의 아파트 브랜드이며, 김 대표는 지역사회에 활발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구 대표이사는 “강진에 대한 애정을 키워오다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알고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올해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읍면 복지회관에 빨래방을 설치하는 ‘홀로사는 노인을 위한 클린-업’ 사업을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부금으로 기부자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해경 북항파출소,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목포해양경찰서 북항파출소는 신안해양과학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교실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교실은 △물놀이 안전 사고 예방 영상 시청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생존수영 △구명조끼 착용법 등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으로 진행했다.

북항파출소 소장은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학생들이 해양안전 수칙을 익히고, 해양경찰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김동균 기자

무안군,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 탄력

전남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무안군이 해제면 송석리에 추진 중인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이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해제면 도리포 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전남도와 무안군, ㈜도리포카이파 간 투자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무안군은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시작으로 7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8월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도리포카이파는 총 2,400억원을 투자해 호텔 245실, 풀빌라 105실, 연회장, 라카페 등 다양한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풍부한 관광자원과 먹거리, 우수한



도리포 리조트 조감도

접근성 등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리포 리조트는 무안군이 추진 중인 ‘도리포 관광명소화 사업’과 ‘서남해안 명품경관 조성사업’과 시너지를 이루며, 새로운 해양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암군이 최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입주대상자 동·호수 추첨행사를 진행했다. 영암군 제공

영암형 공공주택 동·호수 배정 추첨행사

영암군은 최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입주대상자 동·호수 추첨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민선8기 중요정책으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삼호중앙LH1단지 50호, 학산LH 12호 등 62호이다. 군은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 지난해 30호 등 총 200호의 공공주택을 차례로 공급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지난 2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영암군 주거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입주자 중에는 충청도와 부산시

에서 신청한 이들도 있다.

추첨행사에서 동·호수를 배정받은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고, 100만원의 예치금을 내고 2년간 거주하게 된다. 2회 기간 연장 시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입주는 임대계약인 사용대차계약 후 학산LH는 6월 초 입주 가능하며, 삼호중앙LH1단지는 현재 내부 리모델링 공사 후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청년과 신혼부부가 어려움 없이 살아가 수 있도록 다양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현디자인, 목포 만호동에 컵라면 100박스 기탁

광고업체 현디자인이 최근 목포시 만호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60만원 상당의 컵라면 100박스를 기탁했다.

전달된 물품은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가정 등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 우선 배부될 예정이다.

현디자인은 2021년부터 목포시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장영순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